

휠체어 이용자도 장거리 여행 가능

전주~서울간 휠체어 탑승설비 고속버스 시범 운행

전북도는 오는 28일부터 전주 ↔ 서울 고속버스노선에 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시범(상업) 운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버스를 개조하여 버스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으며, 전주↔서울 노선에 1일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주 휠체어 이용자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간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명절에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을 포함해 전국 시·고속터미널 등에

서 휠체어 장애인들의 시외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7년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型和 운영기술의 개발에 대한 연구(2017. 4~2019. 9)를 진행했으며, 전북도에서는 시범운행노선에 전주 가 포함되도록 지속건의하여 전국 4개 시범사업 노선 중 전주↔서울 노선이 포함되어 시행되게 된 것이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까지는 예매(28일 승차시 25일

24:00까지 예매)를 해야 하며, 버스터미널 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승차장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한 후 기존 승차장으로 이동해서 다른 승객들을 태워야 하므로 출발 20분 전까지 전용 버스승차장에 도착하여야 원활한 탑승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행을 계기로 전북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와 특별교통수단과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여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고속버스 티켓 예약은 고속버스 예매시스템(www.kobus.co.kr)을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가 24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가운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각국의 장·차관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최영일 도의원, 태풍 피해 벼 정부 수매가격 인상 촉구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태풍 피해 벼의 정부 수매가격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군)이 태풍 피해 벼에 대한 정부 수매가격 인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농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최 의원은 "농민부가 발표한 태풍 피해 벼의 A등급 매입가격은 1등급 가격의 76.9%로 과거 태풍 때보다 2%p 정도 오른 수치이긴 하나, 올해의 경우 이례적으로 3번의 태풍이 연속적으로 전국을 강타한 만큼 벼 재배 농가의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피해 정도에 맞는 매입가격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태풍으로 인해 벼 재배 농가의 수확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그나마 수매가 가능한 일부 벼의 정부수매가마저 낮을 경우 안 그래도 어려운 벼 재배 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와 있다며 태풍 피해 벼의 정부매입가격을 1등급의 80% 수준으로 인상을 줄 것을 촉구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은 1,355만 4천 원으로 축산농가의 22%밖에 되지 않은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농업총수입 역시 특용작물을 제외하고 영농형태 중 가장 낮다. 이에 반해 노임, 인차료, 농자재 가격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벼 재배 농가는 생산원가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태풍 피해 벼의 수매

가격을 현재보다 인상하지 않을 경우, 농민들은 보다 나은 가격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 벼를 시장에 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가 나서 태풍 피해 벼의 전량 수매를 결정한 배경에는 피해 벼의 시장 유입을 차단시켜 피해 벼 시장과 완전히 격리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만약 피해 벼가 저가미로 등락하여 시장에 유통될 경우 쌀가격을 전적으로 떨어뜨리게 되어 다수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국산쌀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겨 쌀 소비가 위축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태풍 때도 피해 벼의 일부가 시장에 유통되어 그 해 쌀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태풍 피해 벼의 정부수매가격 인상 촉구 건의안은 2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세계적인 친환경 전기차 메카로 도약

군산시, 이지트로닉스·이삭특장차 2개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군산시는 ㈜이지트로닉스, ㈜이삭특장차 등 2개 기업과 새만금 장기입대용지 42천㎡에 총 198억 원을 투자해 13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단지 조성과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지트로닉스는 수소연료전지 버스 및 전기차 등 다양한 차종의 전력변환장치를 공급하는 연구개발(R&D) 강소기업으로 새만금산단에 확장 투자해 경량용 전기트럭, 특장차 제조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골프카트, 초소형전기차, 전동지게차, 농어촌 트랙터 등 전기차 제조 사업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삭특장차는 자동차 구조변경과 자체적인 인증 검사를 실시할 수 있

는 자격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특장차, 왕바디, 이동식업무차량, 캠핑카 등을 제조·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차종의 캠핑카 튜닝이 허용됨에 따라 캠핑카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튜닝관련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일준 시장은 "오늘 투자협약을 체결한 친환경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연내에 착공할 예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만금을 세계적인 친환경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로 조성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적폐청산특위 토론회 가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3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우리지역 정치적 폐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세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지역 변호사 등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석해 의견을 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덕훈 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적폐는 정치

부문에 있어서 패거리 문화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중심에 자발적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지역정치적 폐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세우 박사는 "우리 지역에 도착화된 패거리 집단 문화가 역기능을 하면서 여성정치인이나 청년정치인들의 다양한 목소리

들이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고종운 변호사는 "경선과정에서 학연과 지연을 이용하는 권리당원 모집 브로커들이 여전히 민연해 있는 것이 적폐"라고 주장했다.

청년 정치와 관련하여 이해승 대학생 패널은 "정치에 관심이 부족한 20대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청년들에 대한 기성 정치인들의 관심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도-NH전북본부, 동반성장·지역발전 위해 맞손

전북도와 NH 전북지역본부는 동반성장 및 지역발전을 위해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24일 전북도청에서 최용행 행정부지사와 임정수 NH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분야 상생 협력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지역발

전 방안 구상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세부사업 발굴,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 등 발굴 및 업무지원, 지역 내 도시계획 발전방안에 대한 상호 협력, 지역 내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등이 있다.

도는 협약에 따른 협력분야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과 인

사교류, 개발사업 시행 시 필요한 경우 별도 협약을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NH 전북지역본부는 현재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원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주 역세권·전주 가련산·익산 소라 등 공공지원 민간투자주택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모두 함께 전북 대도약의 시대 '활짝'

출향도민 초청 도정설명회 개최... 고향발전 힘 모아

전북도는 (사)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임병찬) 주관으로 24일 전주 로니호텔에서 출향도민 초청 도정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6일 전북도민회 임원들을 초청하여 도정설명회를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 행사다.

행사는 전국 28개 전북도민회 임원 및 회원들과 더불어 송하진 도지사, 송성환 전북도회의의장 등 1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국악공연, 전라북도 도정설명, 홍보영상 및 만찬 등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를 주관한 임병찬 전북애향

운동본부 총재는 "고향을 방문한 향우회원들이 전북의 변화된 모습과 동시에 변치 않는 따뜻함을 느끼고 돌아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35만 출향도민들이 고사성어 '찰떡동시'처럼 전북 인맥에서 함께 노력하여 고향 발전을 앞당기고, 전북도민회 간 유대와 애향심으로 '전북'의 명예, '전북인'의 자긍심을 높인 데에 명이 참석하였으며, 국악공연, 전라북도 도정설명, 홍보영상 및 만찬 등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출향도민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석탑을 관람하고, 보석박물관을 방문하여 옛 선조들의 우수문화에 자긍심을 느끼고 지역산업을 체험했다.

출향도민들은 25일 경기전 관람 및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둘러보는 전통문화체험을 하고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제39회 전북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전라북도도는 그간 호남향우회에 소속되었던 골레에서 벗어나, '전북도민회'의 확대를 통하여 전국 350만 전북 출향민들의 구심점 구축과 결속력 강화로 전북 뚝 찾기 운동에 한창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김진성 기자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 국제어기문화협회(봉숭아학당) 전주학장
- 도내 각 평생교육원 강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사무처장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 이사
- 도내 각 기관, 단체, 복지관 특강
- 웃음치료사, 노래강사, 스피치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난타지도사 등

강의분야: 웃음치료, 행복노래, 치매예방, 민요율동, 생활체조, 난타, 레크

※ 참고

- ① 각 분야 자격증 희망자 취득가능 상담 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② 남녀, 노소 누구나 회원분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 ④ 꿈을 키워주는 학습의 길이 있습니다.

국제어기협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201, (3층)
(바울센터 옆 텍시양복점 건물)
(H · P : 010-2078-4810)

스피치. 면접. 시낭송. 웃음치료 (1,2월 방학특강)

44년의 전통과 경험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지도하는 강사진으로 구성된 스피치, 면접, 연설, 웅변, 웃음치료 등을 지도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바랍니다. 스피치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과	성인반, 주말반, 개인지도반
정	중, 고등반, 초등, 유치반 (차량운행)
구	취업면접반 (개인지도)
분	회장 인사말, 선거연설 개인지도

- 전주교육대 겸임교수
- 전북대 토론과면접 담당교수 역임
- 전북대, 우석대, 전주교육대, 군산대 과학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 전북 최초 스피치1호 지도자
- 기관, 단체특강 600여회
- KBS TV, MBC TV, JTV 출연자
- 대학 평생교육원(지역별 2020년 1학기 모집도 합니다)
- 전주, 완주, 진안(전주에서)
- 남원, 장수, 순창지역(남원에서)
- 군산, 부안지역(군산에서)
- 김제, 완주지역(전주에서)
- 익산지역(익산에서)
- 정읍, 고창지역(정읍에서)

(사)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부설)
(사)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지부 (부설)
한국스피치 · 면접 · 시낭송 아카데미

위치 : 금암동 백제직업전문학교 옆 삼거리 5층
전화 : (063) 285-6676, 231-6669 (주, 야)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